

## 특특뉴스

### 금융시장 혼란에 금 '안전자산' 부상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금 상장지수펀드(ETF)로 대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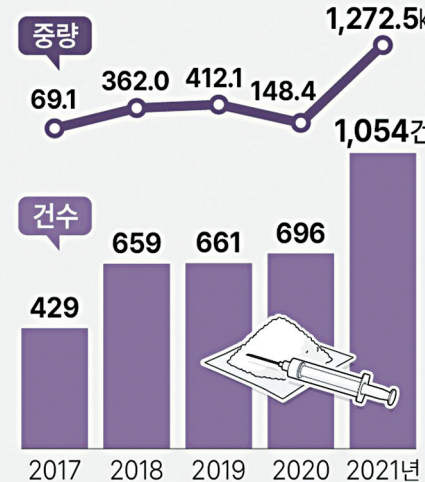
2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다우존스마켓 데이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인 'SPDR 골드 셰어스'(GLD)에 순유입된 자금이 지난 21일 16억달러(약 1조9,168억원)에 이르러 일일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 수요가 급증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미국 증시의 약세도 금값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발표될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 그래픽 경제

### 마약류 밀수 적발 추이



자료/국세청

### 작년 마약류 밀수 '역대 최대'

지난해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적발량이 1,272kg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투약하고도 남을 양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를 1,054건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51%, 적발량은 75% 각각 증가했다.

# “정책·기술·네트워킹 거점으로 새 도약”

## 2022년 지역경제인에 듣는다

###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 혁신·소통 현장 경영으로 질적 성장 경쟁력 강화

### 데이터 중심 업무 재편 기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유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산업의 패러다임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이 변화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급속하게 전환시켰다”고 평가했다. 유 원장은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 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중앙과 지역간 정책 가교역할 수행, 전남형 강소기업(스타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및 기술투자촉진 등 전남의 경제 발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올해 2023년 전남테크노파크 20주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 ▲혁신과 소통의 현장중심 경영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AI 데이터 중심 경영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의 실질적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원장은 “전남 산업경제 정책의 파트너는 기업”이라며 “기업이 탄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대기업과 달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 산업 거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의 정책·기술·네트워킹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속한 경영 환경 변화를 진단하며 전남지역 중소기업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했다. 이어 “혁신과 소통, 그리고 속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역산업이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의 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현장을 찾아가 문제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테크노파크 예산규모는 2017년 577억원에 그쳤지만 올해 1,6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약 290% 성장했다. 또한 단위사업 사업수는 2017년 129개에서 올해 212개로 약 165% 상승했다.

이에 유 원장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다짐했다. 유 원장은 “2003년 전남의 기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술혁신기관 전남테크노파크가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며 “예산규모와 사업수, 재단 정원 등 전반적인 면에서 성장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유 원장은 “지속 성장 가능한 테크노파크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하나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지역혁신시스템을 내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혁신과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산업기획과 기업지원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기업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데이터 중심의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원장은 “오늘날 모든 현장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업과 산업이 이뤄진다”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산업정책기

획과 기업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업무를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하고, AI 데이터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은 26일 광주 남구 소재 해솔지역아동센터에 가전제품과 사무용품, 성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은리더스클럽, 설 맞이 ‘사랑나눔’

광주은행과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랑 뜻을 모아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은 광주 남구 소재 해솔지역아동센터와 동구 소재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가전제품과 사무용품, 성금을 전달했다.

광은리더스클럽은 광주은행과 함께 하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으

로 현재 26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매년 설과 추석 등에 지역 복지시설 및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김홍균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남선산업 회장)은 “지역 최고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은 2007년 창립 이래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함께 하고 있다”며 “주위의 소외된 이웃

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등 지역민과 상생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을 위로하고, 지역 상생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구에 힘쓰며 ‘지역과의 상생, 지역민과의 동행’을 실천하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상무지구 FUNIS

#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FROM PARK 시스템 스크린룸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FROM PARK 시스템 스크린룸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 FUNIS

#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